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문서번호 : 2018 - 04 - 17

2018.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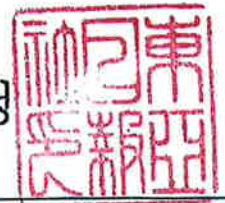
수 신 : 교육부

참 조 : 담당자

제 목 :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대상자 추천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아일보와 채널A 는 다문화 연중기획 '달라도 다함께' 를 2009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을 제정해 건강한 다문화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한 다문화 가정과 이들을 도운 개인과 단체를 시상했습니다.
3.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각 학교를 통해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도 추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천 방법과 양식은 첨부와 같습니다.
4. 첨부 : 다문화상 안내문 및 2017년 시상식 기사  
※ 모집 안내문은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우측 하단 "알립니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동 아 일 보 사 대표이사 임 채 청



## 다문화상 안내문

### 1. 취 지

- 동아일보와 채널A의 다문화 연중기획 '달라도 다함께'의 일환으로 2010년 제정한 'LG와 함께 하는 동아다문화상'을 2018년에도 시상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킴

### 2. 진행 방식

- 주 최 : (주)동아일보사 (주)채널A (주) LG
- 후 원 : 여성가족부

### 3. 일 정

- 접수마감 : 2018년 9월 21일
- 심 사 : 2018년 10월 10일 전후
- 발 표 : 2018년 10월 15일 동아일보 지면보도
- 시 상 : 2018년 10월 24일 오후 15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4. 시상 인원 및 부문

부 문	대 상	상 금
다문화가족(대상)	모범적인 다문화가족	500만 원 모국 방문 경비
다문화가족(우수상)		500만 원
다문화 청소년	초 중 고 대학생 대상	300만 원
다문화공헌 개인	다문화 현장에서 헌신한 교사, 전문가, 봉사자, 공무원 등	500만 원
다문화공헌 단체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 단체, 기관 또는 기업	1000만 원

### 5. 후보자 접수 및 심사 방법

- 접 수 : 공적양식에 맞춰 우편 및 메일로 접수  
www.donga.com 에서 동아다문화상 검색 후 다문화상 신청 알림 하단 공적서 첨부 파일 다운받아 신청
- 심 사 : 접수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6. 연락처 및 담당

- 담당부서 02-2020-1250 정책사회부 또는 02-2020-0199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 이메일 접수 [sonofsin@donga.com](mailto:sonofsin@donga.com)
- 우편접수 : 03187 서울시 종로구 창계천로 1 동아일보사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공 적 서(추 천 서)**

성 명 (기관명)	(개인은 한글성명 및 영문성명) (기관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고유번호)		
국 적			
주 소			
직 장		직 책	
일반전화		휴대폰	
경 력 사 항			
년 월	내 역	년 월	내 역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			
년 월	내 역	년 월	내 역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인)</p>			

# 공 적 서

(지면부족시 A4 별지 사용가능)

\*공적서에 해당하는 자료 및 사진을 첨부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폐교서 시작한 한국생활 고됐지만... 이젠 당당한 다문화 지원군

## 다문화가족 부문

대상 받은 중국 출신 썬커후이씨  
다문화가족 상담봉사... 대학도 장학  
베트남 노래번씨-우즈베크 지요다씨  
이주민 정착 지원 공로 우수상 수상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돕는 데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는 목소리라도 수상 소감을 말하러 썬커후이 씨(40·여)가 신호를 한 뒤 우렁차게 소감을 마무리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어학’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썬커후이 씨의 소감을 짧고 강렬했다.

올해 ‘희망을 담은 LG-동아 다문화어학’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다문화가족, 그들을 돕은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다문화가족상 우수상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쿠지바예비 지요다 씨(27·여)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상이든 위로가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행사엔 남인순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자신 의원, 문광윤 나눔희망사업추진단, 한국외국어대 다문화교육원장, 김순덕 동아일보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 위원장은 “이젠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공존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수상한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축하했다. 정 장관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을 다문화가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중국 출신 썬커후이 씨는 2006년 남편 한종복 씨(45)를 만나 결혼했다. 경기 양평군의 한 폐교에 마련한 신혼집은 겨울이면 코가 얼 정도로 추웠다. 그래도 썬커후이 씨는 한국에 온 뒤 한 번도 “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주변의 친절같은 응원에 덕에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봉사를 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중어중문 학과에 다닌다. 최근 한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썬커후이 씨는 웃었다. 그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가족상 우수상을 수상한 노래번 씨(34·여)는 베트남 호찌민대를 졸업했다. 2006년 4월 성복초 씨(43)와 결혼해 친우 군(9), 유진 양(6) 남매를 키우면서 한국에 실력을 길러왔다. 2014년 전주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고 올해부터 전주대 국제교류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7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어학’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진호연 군, 김영조, 썬커후이, 노래번, 후지외라 마유미, 원희영 씨, 다문화재단 셸러드의 박경주 대표, 쿠지바예비 지요다 씨, GS스포츠 FC서울의 FOS 한병서 담당, 전영현 기자 scoopy@donga.com

## 동아 다문화어학 수상자

- ▽가족상
  - 대상: 썬커후이씨 가족(경기 양평군 중국 출신)
  - 우수상: 노래번씨 가족(충남 천주시 베트남 출신)
  - 쿠지바예비 지요다 씨 가족 (서울 성북구 우즈베키스탄 출신)
  - 후지외라 마유미 씨 가족 (전남 고흥군 일본 출신)
- ▽특별상: 진호연 군 가족(충남 천안시·중국 출신)
- ▽공헌상 개인
  - 원희영 씨(미주 여성 상담사·베트남 출신)
  - 김영조 씨(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 ▽공헌상 단체
  - 사회적 기업 셸러드(다문화 극단)
  - GS스포츠 FC서울(다문화 이민이 축구교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지요다 씨는 남편 유익 씨(51)와 현재의 한국어 학원에서 만났다. 2013년 결혼한 한국에 온 뒤 특기를 살려 다문화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아들 기선 군(5)에 이어 한 달 전 둘째 주선 양을 품에 안은 부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일본 출신 후지외라 마유미 씨(52·여·우수상)는 남편 유대식 씨(59)가 2008년 지체장애를 얻은 뒤 생계를 도맡았다. 연사무소에서 민원봉사실 부지도우미로 일하며 받은 자활근로 수당으로 아들 승규 씨(20)와 딸 연미 씨(18)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특별상을 받은 중국 출신 진호연 군(18)은 아버지 이선남 씨(53) 같은 용접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고등교육원에서 두루뎅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이민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다문화가족상 대상과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상 수상자에게 모금 받은 비용도 지원된다. 공헌상 단체 부문 상금은 1000만 원, 개인상은 500만 원이다.

조진희 becom@donga.com·김효경 기자

# 국내 첫 이주민 극단... 8년간 300차례 ‘희망 공연’

## 다문화공연 부문

단체부문 수상 사회적기업 ‘셸러드’

“문화의 다양성 선도하도록 노력”

개인부문 베트남 출신 원희영씨

이주여성 돕기 앞장... “행복 되겠다”

다문화공연상 단체 부문에 수상한 사회적 기업 ‘셸러드’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이주민들로 구성된 극단이다. 단원 10여 명은 과거 보육에서 공연을 배운 이주 여성과 유학생들이다. 2009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연 횟수는 300회에 달한다. 이주민 차별 등 현상을 고발한 연극부터 다문화를 소개하는 어린이용 뮤지컬까지

모두 단원이 직접 대본을 쓴 순수 창작물이다. 박경주 셸러드 대표는 “이주민 200만 명 시대를 맞아 문화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FC서울’을 운영하는 GS스포츠도 다문화공연상 단체 부문에 수상했다. GS스포츠는 축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13년부터 ‘다문화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만여 명의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축구교실에 참가했다. GS스포츠 관계자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위치에서 또래 한국 어린이와 한 팀에서 축구를 배우도록 했다”며 “상금 전액은 다문화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공연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베트남 출신 원희영 씨(52)는 2004년 남편과 결혼해 입국했다. 한문인 한국어를 몰라 집에서만 지내다 마

음의 방지가 됐다. 하지만 남편과 자신들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운 뒤에는 경기 수원고용지원센터 베트남어 통역원 이주여성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이주민을 돕는 데 앞장섰다.

원 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다문화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았다. 원 씨는 “한국 생활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주 여성들을 격려했다.

또 다른 다문화공연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김영조 씨(51·여)는 경기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로서 7년째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 씨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준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최고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kimbk@donga.com

# “다문화자녀는 고급인재”... 교육 지원 늘린다

여가부, 이종언어 인재 DB 확대  
교육부, 영재교육 참여 대학 늘려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파나마로보 다니엘 씨(22)는 어릴 적 옥탑방에 사는 형편이라 학원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성적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 참여한 뒤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평소 접하지 못한 대학 교수진의 수업과 대학생 멘토의 조언은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현재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학생이자 해병대 입대를 앞둔 학사관후보생(ROTC)인 다니엘 씨는 “러시아에 진출할

연어회사의 일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LG는 2011년부터 부모 나라의 현지어와 한국어 등 이중 언어에 소질을 보이고 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드러낸 다문화 청소년에게 2년 동안 한국 외국어대, KAIST 교수진의 교육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과학 엑스포 수상자, 명문대 입학생 등 수료생 250명을 배출했고 은과 인과점 수강생은 800명이 넘었다.

이 같은 다문화 영재 양성 사업은 지금껏 기업 이주로 담당해 왔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관련 정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

한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문화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2012년 53.3%에서 2015년 68.1%로 상승하는 등 한층 높아진 데 대한, 베트남 등 신시장 공략과 과의 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이중 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309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도 다문화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2개월 뒤 국무총리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거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진희 기자 becom@donga.com

주최: 동아일보사, LG 후원: 여가가족부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커진다**

**38년의 믿음, 맞다! 게보린**

**빠르고 깔끔하게!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약(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외와몸 오남용 퇴치, 게보린이 함께 합니다.



1. 동아일보와 채널A는 건강한 다문화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노력한 다문화 가정과 이들을 도운 개인과 단체를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서는 우리 부에 각 학교를 통해 모범적인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과 다문화 학생과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LG와 함께 하는 동아 다문화상"에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모범적인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 다문화 기여 교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동 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동아일보 협조 공문